

재미는 있으나 원칙이 없는 대중역사서

섹스 등 흥미위주의 소재 많아... 역사의 참모습 왜곡 우려

정태헌

한양대 강사·한국사

무릇 글이나 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제한된 특수한 필수 영역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쉽게 쓰이고 읽혀야 한다. 특히 오늘날처럼 각 분야에서 고등교육 수혜층은 두터워진 반면 '전공' 분야를 넘어서면 '일자무식'이 되어버리는 왜곡된 교육환경 속에서 이 명제의 실현은 더욱 절실하다. 근래의 출판계 동향을 보면 여러 종류의 대중역사서가 많이 출판되어 독서시장의 큰 범주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역사서의 다양한 출현은 자기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상품화하는데 성공한 셈이다. 일단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식도 담고 재미도 있게

대중역사서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특징을 지닌 세권의 책을 중심으로 최근 대중역사서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오백년 역사탐험》(김용삼, 동방미디어)은 현대적 감각으로 저자가 선정한 주제에 따라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을 이용한 사진 채록의 기술이며, 《새로 쓰는 조선인물실록 1》(소준섭, 자작나무)은 인물론을 통해 저자의 역사적식을 드러냈고 《청사홍사》(이재운, 해냄)는 저자의 상상력이 동원되어 6편으로 구성된 일종의 역사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근대사 분야가 연구의 주테마인 평자도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책들을 재미있게 읽었다. 간혹 한국사를 왜 학습하는가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하면서 평자가 내놓는 답은 "우리 것이니까"라는 것이다. 평자는 이 단순한 답에 내재된 철학을 쉽게 전달할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재미있는 대중역사서의 경우, 역사를 고리타분하거나 재미없는 범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 또 몇몇 역사소설류 외에 역사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만큼 그러한 장벽을 허무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한다.

재미있는 읽기 수준에 그쳐

대중역사서의 보다 나은 진전을 위해 비판적 읽기를 해보자. 세 책의 공통적인 특징은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제목도 불이고 뜻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재거리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상품화를 이룰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연산군을 둘러싼 얘기나 어우동을 둘러싼 섹스에 얽힌 얘기는 섹스 모두에서 등장하고 있다. 거칠게 말하면 책의 소재나 저자의 관심대상이 무원칙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청사홍사》의 세가지 소재는 저자의 뚜렷한 역사의식이 관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관된 측면이 보이지만, 세 책은 대체로 재미있는 읽기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조선오백년 역사탐험》은 가장 흥미있게 읽었는데, 저자가 기자로서의 기지를 많이 드러내 《조선왕조실록》의 기술대로 쫓아가는,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는 장단점을 함께 갖고 있다. 그만큼 덜 친절하고 대중화를 위한 품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된다. 흥미 유발은 될지언정 결코 역사학의 참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다. 흥미 있는 소재가 역사의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 쓰는 조선인물실록》은 저자가 생각하거나 대중화하고 싶은 역사적식을 전달할 수 있는 인물 선정이 원칙보다 임의성이 크다는 느낌을 받는다. 또 인물 분석에는 서술의 성격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특정 인물을 둘러싼 황당스러운 전설까지 마치 사실처럼 기술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자료에 근거한)이고 어느 부분이 저자의 주관적 생각인지, 독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친절해야 한다. 독자에게도 판단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군데군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눈에 띄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핵심적 사항인 역사적 용어를 사용할 때의 문제도 있다. 굳이 조선의 왕에 '폐하'라는 인위적 지칭을 사용함으로써 엄존했던 사대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자들이 출세하려는 것은 미인을 얻고자 함이다'라는 어우동을 둘러싼 스캔들 항목은 글 내용과 무관한 선정적 제목으로 섹스문화에 추수한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당시 사회의 성문화 또는 성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보다 진지한 서술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정치가와 당쟁기는 장수한다'는 항목도 당쟁만 일삼은 조선시대의 당(黨)의 수령들이 쓸데없이 오래 살았다는 식의 서술보다는 당시 당

최근 대중역사서가 많이 출간,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흥미위주의 소재거리로 저자의 관심대상이 무원칙해진 경향이다. 재미가 흥미 유발은 될지언정 결코 역사의 참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중역사서들이 지나치게 상업적 소재에 치우칠 경우 역사의 참모습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



쟁정치의 성격을 신분제 사회의 특성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다.

《청사홍사》는 저자의 주관성이 가장 크게 드러난 책이다. 하은주(夏殷周)의 중국 역사를 한국사에 포함시켜야 민족적으로 가장 자랑스럽다거나, 하은주(夏殷周)는 조선의 제후국가라거나, 진나라가 만리장성을 쌓은 것도 조선 때문이라거나, 공녀(貢女) 출신인 기황후를 통해 고려가 원제국을 통치하는 권부의 핵심이었으며 공녀가 원제국의 제1황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필연의 역사라고 한다. 저자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으면 사대주의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견해를 거를 통로가 없다는 것이 대중역사서의 폐단이기도 하다.

평면적인 역사 비교는 위험

중국사를 둘러싼 저자의 주장에 문헌 자료를 보충하는 결정적 근거인 고고학적 증명을 현재 학계에서 갖고 있지 못하다. 고려말기 원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으며 죽어간 국왕의 시호를 정정하지는 주장은 의미 있지만, 고려인 출신 원황실 환관들이 원의 권력투쟁을 조정했다거나 고려 충숙왕이 원의 황제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저자의 관념에 불과하다. 그런 주장을 한다고 오늘의 한국사가 주제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치의식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 쓰는...》과 《청사홍사》에서는 출신지와 자국 역사를 자주 혼동한다. 고선지의 죽음을 두고 정벌의 위업이 "과연 보물을 탐했기 때문이었던 말인가"라는 감상적 연민의 대상인 고선지는 출신만 고구려일 뿐 그의 활동은 당의 역사에 불과하다. 고려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기황후를 둘러싼 역사도 원의 역사일 뿐이다. 이러한 인물군은 차라리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또 조선시대의 당쟁과 고려 태조의 지역 차별 정책을 지역감정에 비기거나 북조 발해가 망하고 남조에서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정립하던 시기를 오늘의 정당정치 싸움이나 남북한 대치 혹은 3김의 분할적 호호정치에 비유하는 부분이 자주 등장한다. 흥미있는 지적이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을 둘러싼 싸움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며, 근대 이전에는 어디에서나 소국가로의 분열과 통합이 거듭되게 마련이었다. 이것을 배경 자체가 질적으로 구분되는 오늘의 현상과 직결시켜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허무주의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